



미국 3/4분기 경제성장률의 주요 내용과 전망

채원영 연구원

- 미 상무부는 미국 3/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 1.9%를 크게 상회하는 2.8%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내수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폐쇄의 영향이 포함될 4/4분기 경제성장세는 둔화할 전망이다.

-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8%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순수출 개선, 재고투자 증가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투자를 제외할 경우 3/4분기 GDP 성장률은 2/4분기보다 소폭 둔화하였음.
 - 2013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분기(2.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국 경제는 2011년 2/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0.07%)보다 개선된 0.31%p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었기 때문임¹⁾.
 -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83%p를 기록하며 2/4분기(0.41%p)에 비해 0.42%p 상승하였으며 정부지출은 2/4분기 0.4% 감소에서 3/4분기 0.2% 증가로 전환하였음.
 - 재고투자가 증가한 것은 신학기과 할로윈이 있는 3/4분기의 소매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하였고, 기업들이 연말 매출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늘렸기 때문임.
 - 재고투자의 성장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3/4분기 GDP는 1.97% 성장에 머물러 2/4분기(재고투자 제외시 2.09%)대비 민간 부문 회복세는 둔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수출증가율(전분기대비): 2013년 2/4분기 8.0% → 3/4분기 4.5%
수입증가율(전분기대비): 2013년 2/4분기 6.9% → 3/4분기 1.9%

■ 미국 경기회복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3/4분기 소비지출은 전분기대비 0.3%p 감소한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3.1%p 감소한 1.6% 증가하였음.
 - 2012년 기준 미국 GDP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0%임.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는 모기지 금리 인상과 9월 미국 정부 폐쇄 관련 우려,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이 원인임.

■ 10월 연방정부 폐쇄와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소비심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 관련 지표의 질적 개선도 부진하여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이다.

- 10월 연방정부 폐쇄와 미국 국채 디폴트 우려 등으로 재정 문제가 재부각²⁾되었으며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심리가 하락하고 있음.
 - 4/4분기 들어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³⁾ 소매매출도 7월부터 상승세가 둔화⁴⁾되고 있음.
 - 반면 ISM 제조업 지수는 대외 수요 및 주택 관련 수요 확대 등으로 10월 56.4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 고용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10월 민간 부문의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21만 2,000명 증가하여 9월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
 - 10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상승한 7.3%를 기록한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197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현재 미국 고용의 질적 개선이 지체되고 있음을 의미함.⁵⁾
- WSJ는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하고는 있으나, 기업들이 적극적인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가계가 지출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기업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채용과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등)

2) 10월 16일, 미 정부는 잠정예산집행 및 정부부채 한도 유예 법안에 합의하여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해소되었으나 장기적인 재정적자감축 방안은 2013년 12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하여 4/4분기 내 재정불안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3)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8월 81.8 → 9월 80.2 → 10월 71.2

4) 소매매출(전월대비): 2013년 7월 0.4% → 8월 0.2% → 9월 -0.1%

5)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9월 16만 3,000명에서 20만 4,000명으로 4만 1,000명 증가하여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음. 실업률이 상승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실업자 수 증가에 의한 것임.